

退溪의 書院교육의 특성

朴 洋 子*

• 目 次 •

1 서언	4 서원의 교육내용
2 서원의 설립 목적	5 결 어
3 조선에서 서원이 일어난 이유	

1. 서 언

퇴계(1501~1570, 名은 滉, 字는 景浩, 退溪는 그의 號)의 학문에 관하여 고찰할 경우,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학문의 내용이 철학이던 문학이던 교육이던 간에 퇴계가 儒學者라는 사실이다 유학의 기본정신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大學』의 이른바 三綱領·八條目이 그 근간이 되고, 이를 다시 네글자로 줄여보면 「修己治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사는 동안 「修己治人」의 기본정신에 서서 德性을 함양하고 못 이치를 연구하면서, 일상생활에서나 관직에 있을 때나 그 出處進退를 분명히 하며 산 實踐哲學者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퇴계가 유학자 가운데서도 신유가 그 중에서도 朱子學을 깊이 신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를 풍미한 유학은 宋學 그중에서도 朱子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宋代 유학의 특징은 漢·唐의 豪族·貴族과 같이 타고난 신분에 의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士大夫라 일컬어지는, 聖賢이 기록한 經傳을 공부하여, 經書의 정신을 體得한 讀書人들이 科擧라고 하는 관리채용시험에 합격하여 官職에 나아가 政治人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대체로 經傳을 공부하여 科擧에 합격한 말하자면 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인 士大夫들이었다 퇴계는 바로 선비가 정치가가 되는 士大夫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퇴계가 태어나 성장하고 활약했던 시기는 장기간에 걸친 土禍의 餘震과 名利와 俸祿만 탐하는 소인배들이 득세하던 극도로 혼란한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퇴계는 결코 관직에 뜻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으나, 다만 네 차레나 계속된 土禍로

* 강릉대학교 철학과 교수

얼룩진 혼탁한 세태하에서는 道義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득이 官界에서 물러나 聖人の 道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書堂을 지어 제자를 교육하고, 書院을 설립하여 유가의 이상인 「篤志願學」¹⁾의 원대한 정신을 수립했던 것이다

본론에서는 朱子學이 조선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士禍로 얼룩진 혼란한 시기에, 士大夫로서의 삶을 택하였으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賢人을 높이고 道義를 강론하면서 장차 국가경영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쪽을 택하여 조선조의 서원儀禮의 師表가 된 퇴계의 서원관에 초점을 맞추어 퇴계의 서원교육의 특성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2. 서원의 설립 목적

서원은 조선 특유의 제도는 아니고, 그 연원은 宋代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학 그중에서도 특히 주자학의 기본사상을 국가경영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사회에 서원이 등장하는 때는, 1543년(중종 38년) 풍기군수 周世鵬(1495~1554, 字는 景游, 號는 慎齋)에 의해 창건된 白雲洞서원이 그 효시이다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되어 있는 서원만 해도 327개소나 되고, 각 봉당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서원과 祠宇가 다투어 설립되었던 숙종말에는 680여개소나 되었다고 한다. 서원이 이처럼 조선사회에서 크게 융성하게 된 이유는, 주자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과 관계가 있는데, 주자(1130~1200, 名은 熹, 字는 元晦, 號는 晦庵)의 서원교육의 정신과 그 교학내용을 적은 「白鹿洞書院揭示」²⁾는 조선조 서원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주자는 일찌기 廬山에 白鹿洞서원을 중건하여 민간교육 기관인 서원교육의 중요성을 현창하고 있다. 주자가 南康軍 知事로 부임(1178년)한 즉시 廬山에 있는 백록동서원을 복원한 이유³⁾는, 첫째 당시 宋代 官學의 피폐상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백록동서원이 자리한 려산이 예로부터 老佛이 융성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인재 양성기관으로 중앙에 國學과 州學·縣學이 정비되어 있었으나, 이곳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예비학교로 전락하여 聖人の 참된 학문의 도야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虛無를 주장하는 老莊과 寂滅을 말하는 佛敎의 이론이 이 세상에 성행하는 한, 유학이 높이는 聖人之道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주자는 「大學章句序」에서 당시 참된 성인의 학문에 도전하는 학풍으로, 科擧에 합격하기 위하여 속된 유학자들이 경전을 암송하고

1) 退溪先生文集 권 42 迎鳳書院記 이하 퇴계문집이라 약칭함
2)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 74 이하 朱子文集·「揭示」로 약칭함
3) 줄고 朱子の 書院觀, 80p-84p, 동방학지, 연세대, 1995

詞章이나 익히는 科擧공부와 이단인 老莊의 虛無와 佛敎의 寂滅의 가르침 그리고 권모술수로써 功名을 취하는 학설과 百家衆枝의 流派 등을 지적하고 이를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자가 평생 비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을 老莊과 佛敎였다 주자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玉山강의」⁴⁾에서는 같은 유학자들 가운데서도 경계해야 할 급선무는 科名爵祿之計 이외에도 陳龍川(1143~1194, 名은 亮, 字는 同甫)으로 대표되는 浙東功利的 學과 陸象山(1139~1192, 名은 九淵, 字는 子靜)을 대표로 하는 江西空虛의 學을 근절하는데 있다고 이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湖南學派의 高遠性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도 湖南學 내부에 깊이 잠재해 있던 禪味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퇴계가 서원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퇴계문집』 각처에 散見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上沈方伯書」⁵⁾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⁶⁾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⁷⁾ 「伊山書院記」⁸⁾ 「迎鳳書院記」⁹⁾ 「易東書院記」¹⁰⁾ 등에 자세하다¹¹⁾ 당시 한성에는 이미 成均四學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전국각지에 鄕校가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퇴계는 「上沈方伯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隱居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들은 道義를 강론하여 밝히고 사업을 익히는 倫序에 있어서, 이들은 대개 시끄럽게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책을 깊어지고 넓고 한가한 들판이나 물가로 피해 나가 선왕의 도를 칭송합니다 고요히 천하의 의지를 살피며 덕을 쌓고 仁을 몸에 익혀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國學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을 가운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學습에 구애받고 다른쪽으로는 異物에 유혹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공효가 같지 않습니다 이는 선비가 학문을 할 때 서원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국가가 賢人을 얻을 때에도 또한 國學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입니다”

퇴계는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에서도

“서원은 賢人을 존중하고 선비를 길러 즐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4) 주자문집 권 74

5) 퇴계문집 권 9

6) 同卷 12

7) 同卷 12

8) 同卷 42

9) 同卷 42

10) 同卷 42

11) 즐고 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제 83집, 퇴계학연구원, 1994의 내용 참조

고 하고, 또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서는

“서원은 賢人을 받들어 높이고, 道義를 강론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고 말하고 있다 「伊山書院記」와 「迎鳳書院記」에도 서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퇴계는 국가가 서원의 설립을 허가한 것은, 「尊賢養士」, 「尊賢講道」, 「樂育人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원이, 科擧와 같은 법령의 구속을 받고 있는 國學이나 향교와 같은 官學보다도 교육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설립목적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다

3. 조선에서 서원이 일어난 이유

서원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유에 대하여 퇴계는 「伊山書院記」에서

“옛날 三代의 학문이란 모두 人倫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후일 聖王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古道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詞章을 지어 풍류를 즐기는 무리나, 경전을 암기하여 과거시험에 합격하므로써 利祿과 명예를 취하는 길로 치달는 무리가 많아짐으로써, 인간의 본성인 德性을 함양하려는 마음이 저들게 되어, 國學과 鄉校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 학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뜻있는 선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탄식하고 책을 등애지고 경관이 뛰어난 깊은 산중으로 피하여 나아가, 성인의 道를 강론하고 밝혀서 자신의 몸을 수양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혁신하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서원이 일어났다”

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말을 바꾸면 조선에 서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퇴계의 서원관을 알려주는 전술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퇴계가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퇴계는 한마디로 당시는 성인의 道가 실현될 수 없는 혼탁한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孔子의 「修己安百姓」¹²⁾ 『大學』의 八條目 『周易』의 「崇德廣業」¹³⁾ 등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학은 修己治人の 구조를 가지고 德治를 기본틀로 삼고 있는데, 유가는 특히 修己를 治人の 先決요건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유자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立身出世하여 신분상승을 기도하는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明德을 닦아 국가사회에 ‘道義’를 실현해야 한다는 使命의식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12) 논어 憲問篇

13) 주역 계사전

안된다. 그러기에 수양이 덜되어 학문이 아직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함부러 관직에 나아가 세상을 經綸해서는 안되고, 설사 등용된다 하여도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때를 헤아려 행동함이 필요하다'¹⁴⁾고 退溪는 말하고 있다. 더구나 태어난 시대가 험난하여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펴서 道義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儒者의 出處進退문제가 생기게 된다. 士大夫였던 퇴계가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갈 때의 準則인 出處進退觀에 엄격했던 것¹⁵⁾도 실은 이는 유자가 중시하는 道統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그동안 사계의 통설로 되어온 조선조 500년이 주자학 일변도라는 지배적 시각에 관한 문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자학은 고려 충렬왕 시대에 元으로부터 수입된 이래 200여년이 훨씬 지난 退溪·高峯·栗谷·牛溪의 논변을 기다려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불교사상이 깊숙히 뿌리내린 고려의 학문적 토양에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씨앗이 조선조에 떡잎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한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 대표적 예가 이른바 士禍인데, 이는 조선조 초기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던 불교적 요소를 유가사상 특히 朱子學의 핵심사상으로 대치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적 충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조 주자학의 수용과정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조선조 서원이 대두하게 된 사상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동안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되어온 이른바 士禍와 黨爭의 성격에 대해서도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퇴계 당대에 빈번하게 일어난 이 士禍의 여파는 퇴계의 일생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출처진퇴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修己治人을 이상으로 삼은 체제하에서는 선비인 士와 정치가인 大夫가 결합된 士大夫는 모든 儒者의 이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모두 士大夫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학덕을 쌓아 선비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의에 의해 혹은 때로는 타의에 의해 大夫로 되는 길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麗末鮮初의 治隱 吉再와 같은 節義派와 세조의 찬위로 인한 生六臣과 같은 忠節派 들은 조선조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孟子의 이른바 糶로 그 道를 실천하는 선비(士)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선비들의 서재나 서당에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 선비들이 모여 道義를 강론하는 일이 있게 되자, 스승이 같은 선비집단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흩어

14) 퇴계문집 권 16 答奇明彦 퇴계선생언행록 권 3 出處 李德弘 기록

15) 퇴계선생언행록 권 5 論人物 金誠一 기록 퇴계선생언행통록 권 1 實記 김성일 지음 퇴계문집 권 15 答李大成 文량 퇴계문집 권 17 答奇明彦 丁卯 퇴계의 출처진퇴관에 대하여는 즐고 퇴계의 자연관,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1992 참조

져 있던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도 국가의 대사를 당하여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냄으로써 士林 혹은 士類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성종·중종대가 되면 중앙정치무대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 사람가운데에는 후일 遺逸로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가 士大夫가 되기도 하였다 퇴계는 자기의 재능을 숨기고 은둔생활을 즐긴 이러한 士林들의 韜晦의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韜晦의 일생을 보낸 顏回와 李延平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士林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士大夫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퇴계는 결코 관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관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科擧를 치게 된 연유를 밝힌 퇴계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曹南冥(1501~1572, 名은 植, 字는 樾仲, 南冥은 號)에게 보낸 서신¹⁶⁾에서 퇴계는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나이늙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아 利祿을 취하게 되었다’

고 말하고 있다 士禍의 회오리바람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그 당시에 퇴계가 과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修己治人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유가의 가문에 태어난 퇴계가 과거에 응시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시대의 혼란상을 잘 알고 있어서 道義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퇴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義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벼슬이라면 존귀한 것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만족하며, 후한 祿을 버리고 적은 봉록에 만족해야 한다는 孟子의 말¹⁷⁾처럼, 퇴계 역시 부모봉양이 그 이유였던 것이다 이는 퇴계가 평생 높은 벼슬을 취하지 않았고, 모친 3년상을 치루고 난 43세 이후 거듭 사직소를 내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일찍이 孔子는 天下에 道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道가 없으면 숨는다¹⁸⁾ 고 했다 또 수신하여 德과 학문을 갖추고 있어도 나라에서 ‘써주면 道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한다’¹⁹⁾ 고 말한다 맹자 역시 수신출세하여 ‘뜻을 얻으면 천하백성과 더불어 이를 행할 것이요,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 홀로 그 道를 행할 따름이다’²⁰⁾ 고

16) 퇴계문집 권 10 與曹樾仲

17) 맹자 만장장구 하

18) 논어 태백편

19) 논어 술이편

20) 맹자 등문공장구 하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出處觀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름아닌 남송의 주자였고, 퇴계도 이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道義를 실현할 정치적 상황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 고향으로 은둔하는 것은 유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고향의 산림속에서 孟子의 이른바 홀로 그 道를 실천하면서 다시 천하에 도의를 실천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대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뜻을 가진 儒者들은 聖人の 道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후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退溪가 「伊山書院記」에서 「志尹學顏」이라 하고, 「迎鳳書院記」에서 「篤志願學」이란 一句에 의탁하여 나타내려고 했던 의미도, 바로 이러한 「修己治人」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伊尹이 經世濟民의 道에 뜻을 두고 天下를 經綸하는 儒家의 이른바 治人の 모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顏淵은 하늘로부터 받은 明德을 밝혀 修身하여 道義를 체득하였으나, 亂世에 태어나 그 道義를 실현할 수 없음을 알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숨어 韜晦의 일생을 보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太平聖代에 태어나 훌륭한 임금을 만났더라면 마땅히 伊尹과 같이 天下를 經綸하는 것이 儒家의 理想이나, 亂世에는 물러나 後世에 聖人の 蘊蓄을 발명하여 이를 萬世無窮에 전해야 하는 것²¹⁾ 역시 儒家의 理想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모시는 임금이 堯舜과 같이 되도록 깨우쳐 주고, 百姓들에게도 堯舜之道의 혜택을 입게 하여 제 살길을 찾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부끄럽게 생각했던 伊尹이 가졌던 그러한 정치에의 원대한 포부를 돈독히 가지고, 陋巷에 살면서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남을 원망하는 일 없이 安貧樂道의 생활을 즐기며 산 顏回의 爲學정신을 회구하며 살라는 退溪의 이 「篤志願學」이란 간곡한 염원에서, 書堂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書院을 설립하여 「尊賢講道」를 강조해온 儒者 李退溪의 理想을 읽을 수 있다

오래 계속된 土禍의 餘震과 간신배들이 들끓는 혼탁한 세태하에서 道義의 실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한 退溪는, 자신이 신봉하는 聖人の 道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官界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陶山書堂을 지어 제자들 교육에 전념했던 것이다 退溪가 1565년 65세 때 지은 「書院十詠」²²⁾ 가운데 9개소의 書院의 설립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그 儀禮 制定에 깊이 관여한 것도 결단코 연고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退溪를 오로지 隱逸의 생활을 회구했던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退溪에게는 張載의 이른바 生民을 위하여 道를 세우고 往聖을 위하여 絕學을 잇는다²³⁾고

21) 通書 聖蘊 제 29

22) 퇴계문집 권 4

23) 張子全書 권 14 性理拾遺

하는 儒者로서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退溪는 孟子의 이른바 大丈夫였다고 할 수 있다

退溪가 書院敎學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尊賢講道」「尊賢養士」의 정신이다 「尊賢」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는 指導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얻는 일의 중요성, 즉 師道의 확립이며, 다른 하나는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鄉土의 先賢을 顯彰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道統의 傳에 관계가 있는 先賢에 대한 尊崇의 念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의 중요성이다 「講道」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면, 決科利祿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言語文詞의 세련됨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五倫」이라고 하는 人倫의 道를 講習하는 곳에 書院敎學의 기본이 있는 것이다 「養士」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면, 書院敎學에 의해서만이 「篤志願學」의 선비, 환언하면 언젠가 참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며, 이것이 후일 書院 출신자가 政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4. 서원의 교육내용

퇴계가 書院敎學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尊賢講道」「尊賢養士」「樂育人材」의 정신이다 이 정신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유가의 근본인 「수기치인」을 실천할 수 있는 「篤志願學」의 선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퇴계는 「伊山書院記」에서 서원교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朱子의 「白鹿洞書院揭示」「白鹿洞賦」²⁴⁾ 「衡州石鼓書院記」²⁵⁾ 및 張南軒(1133~1180, 名은 栻, 字는 敬夫)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²⁶⁾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五倫을 근본으로 삼아 理를 궁구하고 실천을 돈독히 하는 것은 朱선생의 白鹿洞規이다 伊尹이 뜻한 바에 뜻을 두고 顏淵이 즐겨한 그 학문을 배우며, 誠과 明이 함께 나아가고 敬과 義가 서로 같이 서는 것은, 또한 그 (白鹿洞)賦詠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 仁으로써 道를 전하고 그 民生을 구하려고 한 것은 張南軒이 嶽麓의 여러 君子들에게 기대한 바가 크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그 온전함을 기르고, 마악 마음이 움직일려고 할 때 그 기미를 살피서 좋으면 이를 확충하고, 惡이면 이를 극복하여 제거한다 이 또한 朱선생이 저 石鼓의 諸生에게 下學의 공효로써 보여준 것도 지극하다 그러므로 이에 아울러 취하여 諸君들에게 이를 읽히려고 한다 만약 훗날 조정의 命으로 山長계도를 만들고 巨儒를 얻어 가르침을 창도한다

24) 주자문집 권 1

25) 同卷 79

26) 南軒先生文集 권 10

하여도, 그 가르침을 행하는 所以는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 이는 제군들의 본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다른 것에서 구하기를 기다릴 것이냐 제군은 이에 힘쓸지어다

退溪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白鹿洞書院揭示」, 「白鹿洞賦」, 「衡州石鼓書院記」, 「潭州重修嶽麓書院記」의 四者는, 모두 宋儒가 書院에 의탁한 敎學의 正道를 아주 잘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書院에 관하여 설명할 때 항상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들이다 退溪도 이 네 문장을 제시해서, 書院의 敎師와 學生들에게 올바른 指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의해서 退溪가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던 書院 敎學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퇴계가 「伊山書院記」를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서원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五倫을 근본으로 삼고, 그 공부하는 요령은 學問思辨의 窮理공부와 處身할 때의 篤行공부를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유가의 이상인 수기치인의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伊尹이 가졌던 정치가로서의 웅대한 뜻과 顏淵이 지녔던 安貧樂道의 정신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天道인 誠은 자신을 이룰 뿐아니라 남도 이루게 해주니, 이러한 진실하고도 거짓이 없는 誠을 지니기 위해서는 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고, 義로써 외형을 반듯하게 가져야 한다 세째 仁으로써 널리 온 백성을 구제해야 하며, 네째 마음이 고요할 때에는 存養하고,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省察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공부는 일상생활 가운데의 구체적이고도 卑近한 下學의 공부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퇴락하여 황폐해 있던 白鹿洞書院을 다시 일으킨 사람은 朱子였다²⁷⁾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朱子가 지은 「白鹿洞書院揭示」는 이 書院만이 아니라 朱子學의 基本經傳으로서, 후세 朱子學者들 사이에서 널리 尊崇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退溪도 그 중의 一人으로, 退溪가 書院의 학생들에게 제시한 「本之五倫, 而以窮理篤行爲學云云」이란 一文도 이 朱子の 「揭示」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朱子는 「揭示」 가운데에서 옛 聖賢이 사람들에게 학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이유에 대하여, 「義理를 講明함으로써 그 몸을 닦고, 그러한 후에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함」에 있다고 하면서, 이 「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五敎之目 즉 孟子의 이른바 五倫을 맨먼저 들고 있다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五倫은 儒者가 전통적으로 존중해 온 가장 기본적인 道德이며, 朱子는 이것이 우리 인간 本性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여, 白鹿洞書院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學修내용으로 삼았다

退溪가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서 尊賢 「講道」라 말하고 있고, 또 「戊辰六條

27) 즐고, 朱子の 書院觀, 85p-91p, 동방학지, 연세대, 1995

疏²⁸⁾에서 「明道術」이라 말하고 있는 이른바 道·道術은 朱子가 말한 이 「講明義理」의 義理와 같은 의미로, 「天命에서 나와서 彝倫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써, 天下古今이 다 같이 이로 말미암는 길」이라고 退溪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彝倫이란 바로 五倫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佛家에서는 慈悲를 내세워 儒家가 가장 중요시하는 父子有親의 도리를 혼란시키고 있다 또 出家함으로써 夫婦有別의 도리도 파괴시키며, 君臣有義 또한 지키지 아니하므로, 儒家의 견지에서 보면 佛家是 儒家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가족질서와 사회국가질서를 동시에 파괴하는 위험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老子의 경우는 비록 완전히 出家는 아니한다 해도 無爲自然이란 老子思想이 지니고 있는 高遠한 면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萬物一體觀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儒家의 기본이념인 修己治人の 관점에서 보면 治人の 면이 결핍되어 있다 또 이론적 窮理공부를 전연 무시함으로써 虛無에 빠지기 쉬운 폐단을 가지고 있다 朱子가 「揭示」에서 제일 먼저 五倫을 들고, 그 공부하는 순서로 「中庸章句」20장의 이른바 學問思辨의 窮理공부를 든 다음, 篤行之事로서 修身하고, 處事하고, 接物할 때의 要領을 들고 있는 것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老佛과 一線을 긋기 위한 朱子의 강경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孟子가 일찍이 兼愛를 주장하는 墨翟을 無父라 하여 공격하면서 義를 강조하고, 爲我를 주장하는 楊朱를 無君이라 하여 仁을 강조한 것²⁹⁾과 그 사상적 軌를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다 老佛의 道가 이 세상에 성행하는 한, 유학이 높이는 聖人之道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道統정신을 堅持하고 聖學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면 聖學에 위반되는 異端學에 대한 朱子의 비판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朱子가 같은 儒學者 가운데서도 湖南學과 陸學 그리고 陳學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것도, 이들의 사상이 道統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五倫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朱子는 「揭示」에서 學問思辨이란 窮理의 공부와 修身하고 處事하고 接物할 때의 篤行之 공부로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 「中庸章句」 제 20장은 魯의 哀公이 政事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孔子는 “나라 정치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賢臣을 취하고, 자기 몸을 닦되 천하의 達道인 五倫으로써 하고, 道를 닦되 天地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仁에 의거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더 나아가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라 하여 天下古今이 다함께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五倫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學問思辨行之 다섯을 들고 있다 「孟子」 盡心知性條의 朱子注에 의하면, “마음은 사람의 神明이니, 모든 理가 갖추어져 있고 萬事에 응하는 연유이다 性이란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理이고, 天이란 이 理가 말미암아 나오는 곳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全體가 아님이

28) 퇴계문집 권 6

29) 맹자 등문공장구 하

없으나, 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가려진 바가 있어 이 마음이 가진 量을 다할 수 없는 것³⁰⁾이기 때문에 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博學之, 審問之, 謹思之, 明辨之, 篤行之”는 程子 이래 宋儒가 학문하는 방법으로 중시해온 것이다. 朱子는 이것을 白鹿洞書院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순서로 채택하고 있다. 사람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모두 聖賢이 지은 經傳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므로, 뜻 있는 선비들은 이를 매일 읽고 익혀 깊이 생각하고 묻고 분석할 것 같으면, 행동이 도리에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자는 자신을 수양할 때의 요령으로 “말할 때에는 자기 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고, 행동할 때에는 도탑고 삼가함으로 하여야 한다”³¹⁾는 것과, “분노를 참아 화내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욕을 억제하여 탐욕스럽지 않도록 한다”³²⁾는 말과 “他人의 善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를 배워 행하기를 바람의 빠름같이 하고, 자기 과실이 있으면, 단호하게 이를 고쳐야 한다”³³⁾는 말을 들고 있는데, 이는 평소 누구나 자기 몸 가까운 데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물을 접하거나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때에 대처하는 요령으로 朱子는 董仲舒의 이른바 “그 義理를 바르게 하여 그 利益을 도모하지 말고, 그 道理를 밝혀서 그 功績을 계산하지 말라”³⁴⁾는 말을 인용하여, 결과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당시의 利祿 追求 풍조에 대하여 썩기를 박고 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를 행하면 그 가운데 利는 저절로 생기게 되고,³⁵⁾ 道義를 밝혀 이를 실천해 가는 가운데 功績이 자연히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는 動機의 순수성과 수단방법의 公正性을 강조하는 朱子로서는 당연한 결과로, 朱子가 55세 되던 해 浙東의 功利學派에 대해 격렬한 공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道義와 功利에 대한 峻別은 朱子사상의 특성이기도 하다. 朱子는 이것을 白鹿洞書院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순서로 채용하고 있는데, 退溪도 역시 이것을 書院敎學의 기본으로 삼고 眞知實踐의 學이라 하여 높이 보고 있다.

둘째 「白鹿洞賦」를 살펴보면, 退溪의 「伊山書院記」에 나오는 「志尹學顏」과 「迎鳳書院記」에 나오는 「篤志願學」이란 文句는, 「白鹿洞賦」 가운데의 「莘摯가 품었던 바를 성실히 하고 巷顏이 보존한 바를 삼가 지킨다」는 文句를 바꿔 말한 것으로, 원래는 周濂溪의 『通書』 志學章 제 10에 그 典據가 있다.

朱子는 이 「志尹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을 白鹿洞書院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30) 맹자 진심장구 상 盡其心者 知其性也條의 朱庄

31) 논어 위령공편

32) 주역 損卦 大象

33) 주역 益卦 大象

34) 漢書 동중서전

35) 주역 乾卦 文言傳 利者義之和也의 朱庄

반드시 爲學의 기본자세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書院을 단순히 講學하는 장소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道義政治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 즉 儒者의 理想인 「修己治人の道」를 修得하기 위한, 實效性 있는 最良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退溪의 이른바 「誠明兩進, 敬義偕立」이란 二句는 이것도 朱子의 「白鹿洞賦」에서 인용한 것인데, 「中庸章句」 제 21章의, 「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性이라 이르고, 明으로 말미암아 誠實해짐을 教라 이르니,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성실해진다」가 그 典據이다 또한 『易』 坤卦 文言傳에,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라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여, 儒學의 입장이 內外를 일관하는 사상임을 명시한 것이다

세째 張南軒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를 살펴보면, 宋朝의 4대 書院 가운데의 하나인 湖南의 嶽麓書院도, 한 때 廢絶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南渡 후의 乾道元年, 知潭州荆湖南路安撫使였던 劉珙에 의해 중건되었다 「潭州重修嶽麓書院記」는 그 다음해 冬 11월에, 劉珙의 快舉를 기리기 위해서 張南軒이 撰述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張南軒은, 무엇 때문에 劉珙은 書院을 재흥했는가, 그 眞意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劉侯가 이 快舉를 행하신 것이, 어찌 그대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하느 일 없이 안일하게, 다만 科擧시험과 利祿을 취할 공리만 하게 하기 위해서였겠는가 또한 어찌 그대들로 하여금 言語文詞의 기교를 익혀 쓰도록 할 뿐이었겠느냐 생각컨대 人材를 육성하여 이 道를 전하여 이 百姓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

退溪가, 「仁以傳道, 而欲濟斯民, 張南軒所望於嶽麓諸子者衆矣」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張南軒의 말을 인용하여 한 발언이다 劉珙이 嶽麓書院을 재흥한 목적은, 「決科利祿之計」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言語文詞之工」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聖人の 道를 전해, 天下萬民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仁人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한 張南軒의 발언은, 嶽麓書院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退溪의 견해이며, 이것도 書院을 「尊賢養士講道」의 장소로 본 退溪 書院觀의 특색을 고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면이다

네째 「衡州石鼓書院記」를 살펴보면, 이것은 唐代 이후 오랜 전통을 가진 衡州의 石鼓書院을 재흥시킨 宋若水 등 數人의 공적을 기려 朱子가 찬술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朱子는 그간 國學·鄉校의 科擧를 위한 교육이 초래한 弊害를 極論하고, 書院성립의 經緯와, 그 존재의의를 밝히고, 최후에 「中庸」首章에 적혀 있는 「致中和」의 공부에 근거하여, 書院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먼저 종사해야 할 「下學의 工夫」로서, 「養其全於未發之前, 察其幾於得將發之際, 善則擴而充之, 惡則克而去之」 즉 喜怒哀樂 未發時의 存養의 공부와 已發時의 省察의 공부를 들고 있다 이는 朱子 修養論의 핵심이다 朱子가 여기에서 특히 「下學之功」에 언급하고, 그

리고 또한 退溪가 이에 관해서 「又朱先生示夫石鼓諸生，以下學之功者至矣」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前揭 張南軒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가 단번에 「傳道濟民」이라고 하는 고원한 경지를 강조하여, 書院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過重한 責務를 부과시켜 준 것은, 「下學의 功」으로 보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退溪는 朱子와 張南軒이라고 하는 두 先賢의 書院 教學에 관한 대표적인 발언을 인용하여, 書院의 학문이, 決科利祿을 목적으로 하는 國學·鄉校의 교육과는 전혀 異質的인 것임을 밝힘으로써, 書院의 師生에게 教學의 正道를 敎示했던 것이다.

5. 결 어

퇴계가 서원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한 이 네 가지는 실은 서원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퇴계의 핵심사상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퇴계 학문관의 일관되는 공부론이기도 하다. 이는 만년인 1568년에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戊辰六條疏」³⁶⁾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퇴계에 이르러 朱子의 서원에 관한 정신은 생활 활 속에서 완벽하게 실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은 일찌기 경상 좌도와 우도를 대표하는 李退溪와 曹南冥의 사상을 비교하는 학술회의로 모였으므로, 전술한 퇴계의 서원교육의 네 가지 내용에 의거하여, 퇴계와 남명의 학풍의 특성을 일별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겠다.

퇴계와 남명은 두 분 모두 1501년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퇴계가 경상좌도 남명이 경상우도라는 지리적 차이는 있었지만, 기묘사화(1519년)를 경험한 것은 19살때였다. 그리고 집안 내력을 보아도 퇴계는 乙巳사화(1545년)에서 넷째 형 瀧가 피화되어 유배도중 사거했고, 남명 역시 숙부 曹彦卿이 기묘사화때 피화되는 참담한 사화의 공통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퇴계와 남명은 다같이 유학자였다. 그러나 한 사람은 士大夫로 또 한 사람은 士林으로 처신했다.

현존하는 『남명집』의 내용을 보면 남명은 주자학의 근본사상에 대하여 상당 수준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이미 經·史·子를 두루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음양 천문지리·의방·수학·弓馬 行陣 관방·진수 등 잡학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적혀있는 「행장」의 기록³⁷⁾과 남명의 所見이 실은 莊周와 한통속이고, 자기에게 절실한 근본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南華之學을 창도했다는 퇴계의 말³⁸⁾ 등을 참고해 보면, 남명은 주자학이해에 있어서 별로 적극적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남명이 莊子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南冥이란 號가 실은 『장자』 내편

36) 퇴계문집 권 6, 疏, 제 3조 敎聖學以立治本 참조

37) 교감 국역 남명집 권 4, 보유 행장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5

38) 퇴계선생언행록 권 5, 유편 崇正學

逍遙遊편에 나오는 「南冥者天池也」에서 따온 것이며, 그가 강학의 장소로 삼았던 雷龍亭 역시 『장자』 외편 在宥편에 典據가 있는 말을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乙卯사직소」에서 불교의 이른바 「眞定」이란 다만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일 뿐이니, 上達天理하는데 있어서는 유교와 불교가 한 가지라고 한 점³⁹⁾ 등을 미루어 보면, 남명은 불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老佛을 人倫을 해치는 이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退溪가 이러한 남명의 사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乙卯사직소」에서 대왕대비를 「不過深宮一寡婦」라 극언한 남명에 대하여 “남명의 疏가 참으로 지금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언어가 적당함을 지나쳐서 험뜯고 들추어 내는데 가까우니, 당연히 성상께서 보시고 노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남명은 비록 理學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바로 말하면 奇士이다 그 의론과 식견이 모두 新奇한 것을 가지고 높은 사업으로 삼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의론으로 삼고 있다 어찌 참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는가⁴⁰⁾”라고 직언을 하고 있는 것도, 이는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참된 학문 즉 聖學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五倫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퇴계는 「揭示」의 내용대로 窮理·篤行을 들고 있는데, 致用을 중시하고 實踐에 힘쓴⁴¹⁾ 남명은 篤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窮理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것 같다 남명 역시 「下學人事·上達天理」⁴²⁾란 논리를 펴고 있지만, 「下學而上達」의 「下學」의 내용이 주자의 이른바 事物에 해당되는 事理·物理·本性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人事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窮理도 明善에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⁴³⁾ 또한 독서할 때도 章句의 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自得處를 중시한 점 또 정인홍이 스승의 학풍을 「斂繁就簡·反躬造約」이라 하여 「簡約」으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남명이 講論하고 辨析하는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강론하고 변석하는 것을 空言을 일삼는 일이라 하여 躬行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⁴⁴⁾ 등을 눈여겨보면, 簡約을 높이는 陸象山의 학풍과 道家의 학풍을 연상케 한다 이는 『대학』의 이른바 「格物致知」, 『중용』의 이른바 「道問學」 그리고 「博學·審問·謹思·明辨」의 이론공부를 중시한 퇴계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퇴계가 “요즈음 학자들은 灑掃應對之節도 모르는 주제에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세상을 속이고 있는 데도 선생은 長老로써 꾸짖지 않는다⁴⁵⁾”고 퇴계를 빗대어 비판한 남명의 회답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남명을

39) 교감 국역 남명집 권 2

40) 퇴계선생언행록 유편 論人物 鄭惟一기록

41) 선조수정실록 권 6 선조 5년 정월 무오

42) 교감 국역 남명집 권 2, 戊辰封事

43) 교감 국역 남명집 권 2, 무진봉사

44) 교감 국역 남명집 권 4, 行狀

절개가 굳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이르는 하지만, 학문을 통하여 이와같이 되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사업을 성취한 것이 없다⁴⁶⁾고 제자 洪仁祐에게 말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도 연고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이는 당시 주자학의 수용정도를 놓고 볼 때, 주자의 핵심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體得한 주자학자 退溪와 송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사상에 기울어지고 불교 및 이른바 잡학에 호의적이었던 남명의 학문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일 東人이 南人과 北人으로 나누어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伊尹이 가졌던 정치가로서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또 안연이 즐겨한 安貧樂道의 정신을 배워, 어떠한 세상이 오든지 유자로서의 출처진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퇴계의 「篤志願學」정신은 남명도 일찌기 25살 때에 『성리대전』에서 “伊尹의 뜻한 바에 뜻을 두고, 안자의 학문을 배워 벼슬길에 나아가면 큰 일을 이룩하고 초야에 숨어살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장부는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⁴⁷⁾고 하며, 이 때의 심경을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돌아갈 곳을 모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하도 기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발이 절로 춤을 추는 것 같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남명이 「수기치인」정신에서 있었던 것은 「乙卯사직소」, 「戊辰봉사」 및 「嚴光論」에 보이는 내용에 의해서도 곧 알 수 있다 남명은 諫議大夫를 제수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평생 낚시질이나 하며 생을 마친 嚴光을 성인의 도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광이 관직을 거절한 것은 聖天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만약 伊尹이 탕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有莘 교외에서 죽었을 것이고, 부열이 고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암 들판에서 늙어 갔을 것이니, 도를 굽혀 가면서까지 벼슬하기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여, 엄광이 낚시질하는 한 늙은이로 일상을 마친 것이나 남명자신이 처사로 일생을 보내게 된 것은 실은 聖王을 만나지 못한 탓임을 은근히 실토하고 있다 또 「陋巷記」⁴⁸⁾에서 “天子는 천하로서 자신의 영토를 삼지만, 顏子는 萬古고서 자신의 영토로 삼으며, 천자는 만승으로 자신의 지위를 삼지만, 顏子는 道德으로 자신의 지위를 삼는다 그러니 그의 영토는 얼마나 넓고, 그의 지위는 얼마나 큰가”라고 하여 顏子の 道를 높이고 있는 점으로 보면, 남명은 「修己治人」의 정신을 잘 알면서도 顏子の 일생을 선택한 선비임을 알 수 있다 남명이 임종에 임하여 “나의 平生의 뜻이 處士에 있었으니, 처사로 불러 달라고 한 점,⁴⁹⁾ 史官들조차 남명을 「逸士」⁵⁰⁾

45) 교감 국역 남명집 본집 서, 與退溪書

46) 퇴계선생인행록 유편, 論人物

47) 교감 국역 남명집 본집 跋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48) 교감 국역 남명집 본집 記

로 불러준 것 등을 감안하면, 남명은 안연의 安貧樂道의 정신을 體認하고 있었던 士林의 대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명이 出仕를 하지 않은 것은 안연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남명이 莊子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남명사상의 특징은 敬義를 중시한 점에 있다고 한다 「行狀」에도 남명이 “집안 창벽간에 크게 「敬義」 두 글자를 써두고, 吾家에는 이 두 글자가 있을 뿐이라 하면서, 聖賢의 千言萬語가 모두 이 敬義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敬義는 『周易』坤卦 「文言傳」에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에 典據가 있는 말로, 孔子이후 유자가 높이는 말이다 따라서 주자도 「白鹿洞賦」에 이를 인용하고 있으며, 퇴계도 이를 중시하고 있다 이로써 남명만이 특별히 敬과 義를 높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남명이 敬義를 병칭하여 사용하는 것과 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점이 오히려 독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程伊川·謝上蔡·尹和靖·朱子 등 宋代 도학자들은 敬을 특히 중시하였으며, 주자는 未發 靜時의 存養과 已發 動時의 省察에 일관하여 필요한 수양법으로 敬을 들고 있는데, 퇴계도 물론 이 노선에 서 있다 未發 靜時의 存養과 已發 動時에 省察은 朱子 공부론의 큰 특색인데, 이 존양과 성찰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居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주자는 이 敬은 動靜을 일관하는 전체적인 마음의 공부로, ‘敬은 一心의 主宰·萬事의 근본’이며 ‘聖學의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는 要諦⁵¹⁾’라고 말하고 있다 퇴계 역시 ‘程朱의 홍성은 居敬窮理란 두 마디로 만세에 큰 교훈을 세웠다⁵²⁾’고 하고, ‘오직 主敬의 공부만이 動靜을 通貫하여 거의 用工에 부족하지 않다⁵³⁾’고 말하고 있다 남명도 「戊辰房사」에서 程·謝·朱의 敬說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대 도학자들의 敬說을 수용한 것 같다 그러나 후일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남명문하인 郭再祐·鄭仁弘·김면 등이 의병장이 되어 활약한 것은 어디까지나 남명의 義를 중시한 사상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널리 仁을 베풀어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이른바 博施濟衆설에 관하여 보면, 남명은 金海·三嘉·德山에 은거해 살면서도 “不能忘世, 憂國傷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백성 대하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하라는 남명의 정신은 정인홍에게 계승되어, 그의 상소문에는 保民·愛民·恤民 등의 어휘를 자주 볼 수 있다 일찌기 이 널리 베풀어 모든 백성을 구제하면 가히 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묻은 子貢에게, 孔子는 ‘어찌 仁만이겠는가 반드시 聖人이다 堯·舜과 같은 聖天

49) 교감 국역 남명집 년보 72세

50) 명종실록 권 19, 명종 10년 11월

51) 대학혹문

52) 퇴계문집 권 12, 여박택지

53) 동상 권 14, 답이숙현 별지

수도 그리할 수 없어서 고민하셨다'⁵⁴⁾라고 답하고 있는데, 퇴계는 「西銘考證강의」에서 이 구절은 子貢이 자기 몸가까운데서 仁을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고 高遠한 것을 구하므로 공자가 나무라신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유가에도 백성 보기를 '마치 赤子를 보살피듯이, 상처난 사람을 보호하듯이'라는 말이 있으나, 우선 孟子의 이른바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仁을 베풀 때에도 불교와 같은 무차별사랑이 아니라 「推己及人」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명 문하에는 子貢과 같은 高遠性이 보인다 할 것이다 이 高遠性은 까닭 잘못하면 老莊이나 佛敎가 주장하는 萬物一體說에 떨어지게 되므로써, 이 세상을 초월한 超脫주의에 빠지게 되기 쉽다 언뜻 보면 고상해 보이나, 空虛하여 실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退溪는 五倫에 의거한 실질적인 「下學의 공부」를 窮理篤行이라는 실천방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 것이다

끝으로 이 기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퇴계와 남명의 사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兩賢의 사상적 특성을 조선시대 주자학의 수용선상에서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國是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의 핵심사상인 「朱子家禮」가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200여년이 걸렸다 또한 3년상이 정착되고 五倫이 일상생활화 되며, 향약이 성황을 이루는 시기는 적어도 임진왜란(1592년)을 거쳐 조선사회가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시행한 선조이후였다 선조대를 고비로 불교는 정치제도적 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 자취를 감추고 조선 중기에 이르면 주자학은 명실공히 조선사회의 지도이념이 되는데, 퇴계와 남명은 바로 조선사회에서 불교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주자학의 영향이 점차 커지는 사상적 과도기에 산 유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사상 가운데 핵심부분을 체인한 퇴계와 宋學을 폭넓게 수용한 남명의 학문관의 차이는, 선조시대이후부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주자학이해의 순도를 놓고 논쟁으로 전개되는데, 이때부터는 유학자들 사상내부에 잠복해 있던 불교적 요소와 老莊的 요소는 물론 주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陸王의 요소들을 변별하여 보다 순수한 주자학쪽으로 나아가려는 학풍이 등장하게 된다 학문한 사람이 科擧를 통해 정치가가 되는 유학이 가진 「修己治人」의 특성때문에,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62년의 明清교체기라는 엄청난 對外 정치현실의 변화에 당면하여, 현실인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던 조선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의 차이가 정치적 견해차이로 확대되어 일어나게 된 것이 이른바 黨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와 남명의 사상적 차이를 학문적 우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중국의 주자학이 조선사회에 조선주자학으로 토착화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이른바 당쟁은 통과의례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54) 논어 용야편